

배움의 주체를 삶의 주체로 만들다

민주주의 수업 들여다보기

글 이동욱 숙지고등학교 역사교사 / uktiger1@naver.com

학생들은 이제 '똑똑한 성인'이 되기 위한 날갯짓을 해야 한다. '똑똑한 성인'이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기 생각을 주장과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밝히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며, 서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토론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가 ’

가 가

가

가

‘education’

‘educere’가 ‘(

)

(授業)

(業)

(授)

(業)

(授),

(業)

(授)



모둠 토론 장면

제공된 주제별 워크시트를 개별적으로 읽고 토론 발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기록한 다음, 이를 토대로 모둠 구성원들과 함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주제별 첫째 차시에 해당한다.

가

?, ‘

?

?, ‘

?

?’

가

가

가

민주누리



전체 토론 장면

모둠 토론을 거치고 나면 두 입장의 학생들이 서로 마주 보도록 책상을 재배치하여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이 때 사회자 2명이 A, B 각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 서기 2명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학생들이 수업 일기에 작성할 수 있도록 판서한다. 수업이 종료되면 학생들은 수업 과정을 통해 각자 최종적으로 정리한 자신의 생각을 수업일기에 기록한다. 전체 토론 때마다 학급별로 요구되는 발표 인원수는 25명 이상(학급당 학생수는 보통 33명이다)이고, 이 시간에 작성되는 수업일기는 학기별 총점의 60%에 해당하는 수행평가의 대상이 된다.

